공연을 넘어 기억해야 할 역사적 가치

'2025 민주·인권·평화 마당극제'가 24~25일 ACC 열린마당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마당극제. ACC 제공

5·18을 보내는 주말 문화 행사
마당극·어머니의노래·가요제
그리움·아픔·열망 담은 무대

5월의 마지막 주말,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가 열린다. 오월어머니들이 인생을 회고하는 '오월어머니의 노래'를 비롯해 오월의 열기를 공유하는 마당극, 그리고 5·18 정신을 기리는 창작곡을 선보이는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본선이 펼쳐진다. 올해 5·18 주간을 맞아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광주를 기억하고 행사를 함께했으나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손수건 없이 볼 수 없는 무대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희망찬 노래가 울려 퍼지는 무대도 5월을 기억하는 하나 된 자리가 될 수 있다.

● 오월어머니의 노래…24일 ACC 예술극장2

손수건 없이 볼 수 없는 무대다. 5·18 당시 남편과 자식, 동생을 잃은 '오월어머니' 15명이 그리움을 노래하는 '오월어머니의 노래'가 24일 오후 5시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울려 퍼진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오월어머니의 노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피해자들의 숭고한 넋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ACC가 기획한 공연 콘텐츠다.

1부 공연에서는 남편을 잃은 '아내의 노래' 9곡이, 2부 공연에서는 동생을 잃은 '누이의 노래' 1곡과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노래' 5곡이 펼쳐진다. 특히 '오월어머니의 노래' 중 김길자 어머니의 사연인 고 문재학 군의 이야기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바 있다.

'오월어머니의 노래'는 오월어머니들과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함께 만든 공연으로, 지난 2022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해마다 전 국민과 오월의 가치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악인이자 배우인 오정해씨가 참여해 오월어머니들의 절절한 사연이 보다 잘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민주·인권·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의 세계화를 위해 24일 광주공연을 비롯해 오는 6월 18일 일본 오사카 공연도 예정돼 있다.

'오월어머니의 노래' 공연은 무료로, 광주와 오사카 공연은 ACC 공식 유튜브와 오마이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ACC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민주·인권·평화 마당극제…24~25일 ACC 열린마당

24~25일 오후 5시40분 ACC 열린마당에서 열리는 '2025 민주·인권·평화 마당극제'는 광주의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이라는 역사의 변곡점에 있던 민주화의 격정적 사건을 주제로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월의 열기, 민주화의 열망을 많은 관객과 공유하기 위해 마당극 공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24일은 놀이패 신명의 '언젠가 봄날에'가 무대에 오른다.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소리와 춤이 어우러진 굿을 통해 당시 흔적 없이 사라진 행방불명자들과 그 가족들의 사라져가는 기억을 붙잡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항쟁의 슬픔과 아픔을 담아낸다.

25일은 제주4·3을 주제로 한 극단세이레의 '오사카에서 온 편지'가 펼쳐진다. '오사카에서 온 편지'는 제주4·3 당시 비극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한 한 여인의 삶을 그려낸 작품으로 떠나야 했던 이들의 아픔과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따뜻하게 그려낸다.

'민주·인권·평화 마당극제'는 동질적인 경험과 기억을 내재한 5·18기념재단과 4·3평화재단이 ACC와 함께 하며, 앞으로도 마당극제를 통해 역사적 기억을 문화예술을 통해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함께 이어갈 계획이다. 관람료는 무료로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전국 오월창작가요제…24일 5·18 민주광장

제15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본선이 24일 오후 6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올해 오월창작가요제에는 총 154곡이 접수됐으며, 참가신청서, 연주 영상, 음원 등을 기반으로 5인의 심사위원이 1차 예선을 심사한 결과 총 14팀이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이번 본선 경연에서 만나볼 곡은 △Habitat의 '자유롭게' △소담의 '봉천 3동 한울이에게' △언더독의 '빛' △시나 쓰는 앨리스의 '비와 걷기' △담담의 '상처' △길몽의 '푸른 봄 희망가'이다. 또 △맨인블루스의 '레디 액션' △고명원밴드의 '그 날 그 밤에' △예람의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페이퍼 몬스터의 '아침을 부른다' △취향상점의 '여기 가운데, 나 홀로 남아' △Opulse의 '유토피아' △홍조X한스의 '비 내릴 비' △하노의 '소년이 소년에게' 까지 총 14곡이다.

최진화 기자

산과 바다가 만나는 '무등울림축제'

24~25일 문화재단 전통문화관

2025무등울림축제가 24~25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광주시 동구 의재로 222)에서 열린다.

올해 무등울림축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광주와 일본 북해도의 오랜 교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주제다.

24일 오후 2시부터 너덜마당 야외무대에서 개막공연 '꽃바람 따라'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피아노 병창'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고영열, 서도민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표현하고 있는 예결밴드, 국악방송 진행자이자 '우쿨렐레 판소리' 장르를 개척해가는 황애리가 무대에 선다.

국악인 고영열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연계행사 토요상설공연으로 문명자 광주시 무형유산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가 '가야금병창 다섯마당' 무대를 선보인다. 수궁가, 적벽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다섯마당 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가야금병창의 매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25일 오전 11시에는 ㈔대한무용협회 광주시지회의 제20회 빛고을 청소년 춤축제가 열린다. 한국·현대무용, 발레 등 광주 무용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공연이다. 오후 2시부터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국악인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국악인 김산옥과 가야금병창 임재현이 흥겨운 무대를 펼친다.

오후 3시 폐막행사는 북해도 전통예술단 拍子(란뵤시)의 무대다. 일본의 전통 북 연주와 타테(연극이나 영화에서 난투하는 장면에 사용되는 동작)를 기초로 한 무용연극 무대가 펼쳐진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일본 전통 북 체험이 가능하다.

체험행사도 풍성하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사자길들이기 대작전 △물레를 돌려라(도예체험) △전통의 풍류를 즐겨보세(전통주체험)가 사전예약 및 일부 현장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운림동 일대 '스탬프 투어'도 진행한다. 국윤미술관, 우제길미술관, 드영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의재미술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전통문화관까지 행사에 참여하고 스탬프를 4개 이상 받으면 미니 손풍기를 선물로 증정한다.

최진화 기자

퓨전국악으로 다시 보는 '심청전'

'심청날다' 30일 북구문화센터

퓨전국악밴드 밴드날다의 공연 '심청날다'가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심청날다'는 '심청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창작공연으로 전통 판소리의 서사성과 밴드음악의 다이내믹한 에너지가 결합된 스토리텔링 콘서트다. JTBC 풍류대장 출연자인 판소리 보컬 오단해, 서진실과 색소폰, 드럼, 베이스, 기타, 키보드, 퍼커션까지 총 8인조로 구성된 밴드날다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음악을 통해 '새로운 국악'을 제시한다.

'쾌지나칭칭', '둥둥둥 내 딸', '소녀심정' 등 심청전의 주요 대목에 흥겨운 펑크 리듬, 소울, 블루스 음악을 접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밴드음악과 소리꾼 재담, 상황에 맞는 연기를 가미해 작품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다.

아울러 한국무용과 상모돌리기 등 다채로운 전통 퍼포먼스가 더해져 관객들에게 전통 판소리와 무용 그리고 서구적인 사운드가 한데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의 2025년 두 번째 '콘서트IN북구' 공연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된 우수공연이다. 7세 이상 관람가로 전석 1만원, 티켓링크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최진화 기자